

## 병회(病懷)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한 기 상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단순하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 톨스토이 -

눈 깜짝할 틈에 칠순(七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마음이 행해진다. 세상을 잘 못 살아온 것일까? 예전에는 극명한 대립으로 보이던 세상사(世上事)도, 스쳐간 인연(因緣)도 모두, 새옹지마(塞翁之馬)처럼, 우연(偶然)이 아닌 예정(豫定)과 신비(神秘)의 조화로 연상(聯想)되어, 새삼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게 된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병회와 관련된 지나온 삶에 대한 추억들이다. 혼자로는 애뜻한 삶의 흔적이지만 글쓰기가 어눌하여, ‘무능(無能)한 열정(熱情)의 비극(悲劇)’처럼,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어된다.

‘그 때를 아십니까?’ 낱아빠진 양말, 고무신, 물바가지, 냄비, 거의 모든 것을 기워 입고, 신고, 땀질해서 사용하던 1950~60년대. “Be, who you are!”로 살기에는 가난탈출이 급선무였던 시절, 알뜰한 주머니 사정으로 새 책을 살 여유가 없어, 청계천을 휘돌아 감아 옹크려 뺀은 고가도로 교각 아래 즐비하게 늘어선 헌책방들을 순례하며, 찌는 여름에도 차비가 아까워 신발이 닳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대학을 다녔다. 데모로 얼룩졌던 교정 밖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는 괴테의 <파우스트(Faust)>를 해석하느라 전전공공이었다. 문예학적 가치는 하늘을 찌를 듯 독일통일의 중요성만큼이나 강조되었지만, 흥미는 삼국지의 절반도 못되었다. 낭만주의의 맥을 이은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Deutsche Liebe)>은 그나마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죽음을 앞둔 귀족 소녀를 사랑한 한 독일 젊은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다룬 감동적인 작품이었지만, 입주가정교사가 아니면 등록금을 조달할 길이 막막했던 힘겨운 시절이었기에, 학업도 데모도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TV에서 재방영되는 저 먼 날 태극기 휘날리던 흑백 영상의 ‘대한뉴스’를 보노라면, 귀에 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새삼 향수를 가져온다. 힘들고 고달팠던 옛 시절을 떠올리면 요즘 유행하는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은 무척 격이 떨어지는 어휘로 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이나 건강에 관한 기사로 넘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렵고 못사는 것은 고사하고 탈도 많고 병도 많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도 적지 않아, 자살수도 예상을 넘어서는 별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는 매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무력하기 그지없는 자연재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필자의 체험은 빙산 일각(冰山一角)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병화에 관한 문제라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하고 보니 글이 말을 못 따른다. 더구나 “요즘은 개도 소도 다 글 쓰겠다고 나선다!”는 어느 문인의 억하심정의 푸념이 귓가에 맴돌지만 적어도 한 구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지난날을 반추(反芻)해 본다.

유학시절 독일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네 살 때 오진(誤診)으로 어쩔 수없이 맹장수술을 받았다. 반 지하방이었던 기숙사의 냉기로 인해 구토를 한 것이 시발이었다. 의사는 수술 후 마지못해 오류를 인정했지만 바로 퇴원을 시키지 않고 척추에서 혈액을 채취해 마인쯔(Mainz)로 보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원리원칙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시한다 싶어 절로 한숨이 나왔다. 겨우 검사를 중단시켰다. ‘만일의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절차상 서약을 한 후, 논문은 적당히 마무리 짓고 서둘러 귀국했다. 순간의 판단실수로 야기된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질 아래의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있으며,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몽골속담)는 명언을 명심해야 했지만, 한동안 통분이 입안을 맴돌았다. 두 번 다시는 독일 땅을 밟지 않겠다는 심사가 복받쳤다. 외국인을 무척 싫어하던 아들의 유치원 여선생의 인종차별의식까지 한몫을 했다. 이대로 독일 땅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다짐이 몽클했다. 단지 친 형제처럼 우리를 살갑게 대해 주던 독일친구들에게까지 점차 소식 돈절했던 나의 처신은 지금도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 이후 일체 병원불신(病院不信)으로 일관해 왔다.

1981년. 별 게 다 별난 이유로 서로 부딪쳐 금지곡이 되던 답답한 시기에 귀국했다. 그 뒤로도 아들은 가끔씩 복통을 앓았으나 대수롭지 않은 걸로 간주했다. 다행히 귀국 즉시 중앙대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졸업정원제로 인해 독어독문학과가 상당히 증설된 것과 독일학위소지자가 소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안성분교였기에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는 출퇴근은 무척 힘들었다. 모임도 잦아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가슴에 자그마한 빨간 반점들이 생겨났다. 동네 병원의 진찰결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지냈다. 얼마 후 모교 교수로 발령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질병과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매일같이 보도되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것처럼 느낀다고 했던가? ‘망건쓰자 파장’이라더니 모교 교수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아무 것도 아니라던 반점들은 간염의 초기 증상이었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셈이었다. 피로 누적에 이래저래 얽혀온 잡다한 인간관계까지 겹쳐 심한 속앓이로 인해, GPT가 360이 넘는 심각한 간염 환자가 되고 말았다. 피곤이 가시지 않았다. 얼굴

은 거머튀튀, 병색이 완연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색이라고 했다. 곧장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불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각종 전문의의 견해와 처방도 유행을 타는지, 어떤 때는 고단백(특히 쇠살코기)을 적극 추천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는 또 채식을 권하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망설여졌다. 지인의 권유로 안식교에서 실천하는 식이요법을 열심히 따랐다. 현미를 비롯한 다양한 채식위주의 식사와 단전호흡, 인근의 산행과 산책으로 고집을 부렸다. 알콜을 이용하는 부항치료도 효능이 있었다. 당시 같은 병으로 고투(苦鬪)하시던 몇 분의 동료는 병원의 처방으로 어느 정도 호전되는 듯 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신걸 보면 차라리 나름대로의 처방이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들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우연(偶然)과 필연(必然)의 묘한 연(緣)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992년 여름. 아들의 건강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던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이후로 서서히 간염수치가 호전되었으니 기묘한 상념이 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끈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상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을 거라고 포기했던 귀한 손자를 살리고 돌아가셨다는 할머니의 혼에 관한 절친한 동료교수의 이야기는, <혼불>의 눈물겨운 애환을 연상케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건강을 잃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후배교수와 잘 어울려 지내며 헨들을 잡으면, “Immer geradeaus!” (“언제나 직진이요!”)라고 독일어로 정확하게 발음하시던 불어교육과의 정연풍선생, 만인이 사랑한 생뚱쥬뻘리의 <어린왕자>를 연구한 그는 50대 중반에 우리 곁을 떠났다. ‘My Way’를 프랑크 시나트라처럼 구성지게 부르며, 등산과 바둑을 함께 즐기던 교육과의 김안중선생, 물골이 말이 아니었던 필자의 건강을 늘 안쓰럽게 여기던 그도 정년을 앞두고 아쉬움을 남긴 채 먼저 세상을 졌다. 가까이는 2003년 설날 즈음 매서운 추위 속에 세살 아래인 아우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간암이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임종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부모님 슬하에서 가진 것 별로 없었어도 모두가 건강하게 오손 도손 정답게 지내던 그 옛날이, 정지용의 ‘향수’처럼, 흘러간 세월을 아련히 떠오르게 만든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체력관리에 안간 힘을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도, 내 스스로 심신이 나약해진 뒤에야 눈에 들어왔다. 현명치 못한 탓에 세월만 덧없이 흘러보낸 것 같아 회한이 구름처럼 밀려왔다.

혹시 간암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이 늘 심신을 짓누르는 가운데 지나간 세월의 악전분투가 시작되었다. 묵묵히 인내하며 수발드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로지 건강에만 매진했다.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삶이 생기로웠다. 가끔 오른쪽 옆구리가 결리고 목직한 증상은 늘 간과 연관되어 가슴을 조이게 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정작 체력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정신인데도 체력이 고갈되고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이다. 심신이 일체라 몸이 정갈해야 정신도 고양되는 법. 아름다운 정신을 간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듯하다. 대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며,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진부하다고 생각한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참으로 멀다’고 하더니 학력도 높고 아는 것도 많은 우수한 사람 가운데도 생각밖에 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지만,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질없다고 생각을 돌린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여유도 필요도 못 느껴온 흘러간 세월이 너무 길었던 듯하다. 왜 이 모든 것을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하다. 그것도 아주 수없이.

1995년. 둘째 아들의 고향이 된 둔촌동에서 생활한지 15년. 여러모로 정이 들기도 했지만 병이 든 곳이기도 하다. 마침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덕분에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처분하고 교통이 한결 편한 평촌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공기도 맑고 연구실까지 1시간이면 충분했다. 게다가 넓은 평수로 옮기고 나니 대궐 같았다. 얼마나 좋았던지 학과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람을 찾으려면 한참을 헤매야 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풍족스러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군복무 중이었던 큰 아들이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 옛날의 복통이 예사복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육군통합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독일에서 받은 수술마무리 과정에서 장이 제대로 안치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으며 회복기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무척 고마웠다. 그것도 모르고 복통을 호소할 때마다 성격이 별나다고 야단을 치고 모진 말로 타박을 했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런 가운데 한 동안 잊고 지내던 건강이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고 걸리던 것이 이젠 제법 심한 통증을 수반하여 견디기가 힘들게 되었다. 동네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점점 더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향했다. 마침 아들이 동행하여 의사와 의논한 끝에, 또 그놈의 장염이겠지라고 생각하여 진통제를 찾던 내 청을 묵살하고, CT 촬영을 강행시켰다. 이 날 병들면 내 몸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가르침 하나를 더 얻었다. 그런데 CT 촬영 결과가 의외였다. 장염이 아니라 복막염 직전의 맹장염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토록 모르고 지낼 수가 있었냐고 하는 말에 갑자기 멍텅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복강경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드물었다. 대학병원에서는 2주일도 더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행히 곧바로 인근 병원의 맹장 전문의에게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의 의문이 풀린 셈이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끔씩 오른쪽 옆구리는 묵직하고 걸리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치레로 집안 식구를 괴롭혀온 터라 이제는 함구하기로 작정했다.

그 후로는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사이에 30년이란 세월이 훑훑 날아갔다. 대학에서 또

과에서 성대하게 베풀어 주는 정년퇴임식까지 분수 넘게 대접받으며 탈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고급 중국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집 근처 정류소에 이르러 막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 벨을 누른 것 까지만 기억났다. 술이 엉터리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안경은 다 부러진 채 나뒹굴었다. 주위의 승객덕분에 바로 안전하게 정류소 바닥에 눕혀졌고, 119를 요청한 상태였다. 7~8분간 의식불명이었다고 했다. 의식이 돌아온 즉시 아내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으나 희한하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저 멍해질 따름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을 깨어보니 ‘갑충’으로 변해버린 카프카의 ‘변신’이 금방 이해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후 한동안 어지럼증이 심해 이비인후과와 정신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무실통이었다. ‘Zeit ist die beste Medizin!’ (세월이 약이다!) 이라고 하더니,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었다. 어지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번에는 복통이 다시 시작되면서 무척 고통스러웠다. 가까운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다. 위가 무척 상해있으며, 궤장형태가 정상이 아니게 나오니 CT나 MRI를 통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CT 촬영 결과 청천벽력이었다. 궤장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지방관리가 대궐에서 호출을 받으면 과천서부터 긴다고 했던가? 마치 사형수에게 지금부터 독약을 주입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포도당주사를 놓았으나 이미 사형수는 초죽음이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처럼, 이젠 죽을 일만 남았다고 미리 단정을 하고 유언을 준비하는 등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참담한 나날을 보냈다. 수술을 받아도 안 받아도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궤장암. 더구나 막내 동생의 장인이 궤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예약과 취소를 반복했다. 입원하면 자동적으로 수술이며 그 후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산의 어느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선식과 효소로 남편이 7년을 버티었다고 했다. 효능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6개월분의 선식과 약초로 만들었다는 몇 가지 항암제를 주문하고 돌아왔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더니 이제 간신히 퇴임하였지만 자식 하나도 성가(成家)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삶이 끝났다는 비감에 그저 망연자실의 허탈상태나 다름없었다. 만일을 대비해 유언이랍시고 몇 가지를 당부할 때는 가슴이 쓰렸다. 이래저래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가운데, 둘째 아들이, 수술은 권하지 않을 테니 제발 큰 병원에서 한 번만 더 진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당시 어느 대학병원의 초임의사였던 아들 친구가, 복사해 온 CD를 면밀히 검토한 후, 궤장형태는 의심이 가지만 아무래도 암은 아닌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대학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게 했다. 약 보름 후에 나온 결과: 오진이었다. 몇 개월 사이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체중이 무척 줄어들어 피골상접(皮骨相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느 유명의를 찾았다. 한의원(韓醫院)도 아닌데 진맥도 하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했다. 목 근육이 우두독할 정도로 좌우로 흔들어 바로잡은 후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다고 했다. 매사에 잔뜩 웅크린 소심덩어리로 오장육부가 쪼그라들어 있는 신경과민성 정신질환에 가깝다고 했다. 나이롱환자로 단정한 것이다.

“아프면 죽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크게 놀랐다. 이렇게 당돌한 의사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고마움과 안도와 놀람이 뒤섞인 어리둥절한 자세로 병원 문을 나섰다. 지옥을 다녀온 것 같은데 ‘健康異常無’라니. 지당한 말씀에도 내심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래, 40대 중반에 죽을 걸 70까지 살았으니, 이제 아프면 죽으면 되지만 죽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당분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도 가끔씩 옆구리가 결리고 묵직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위축되었지만 단호한 명의의 말씀이 떠올라 병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옆구리 통증은 영 실험대상의 문제아로 남은 기분이었다.

죽을 고비는 어릴 적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님은 전근이 잦으셨고, 그만큼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다. 김해 태생이신 어머니의 고향에서 태어나, 아버님의 고향인 웅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울산 태화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다녔다. 더운 여름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어울려 태화강에 멍 감으러 갔다가 혼자 강위를 지나는 철교 아래 깊은 웅덩이에 빨려 들어가 허우적거리다가 주위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물을 몇 바가지나 먹었는지 모른다. 그 후로는 수영금지령이 내렸고 지금까지도 물을 무척 겁내는 수준이다. 무턱대고 동네 형들을 따라나섰다가 수박서리를 하는 바람에 나만 붙들려 얻어맞으며 집으로 끌려와 수박 값을 물기도 했다. 왜 그리 밖으로 쏘다니길 좋아했던지. 여덟 살 때는, 울산에서 웅촌 할아버지 댁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우겼지만, 가는 도중에 졸고 말았다. 다행히 웅촌에서 버스에 오른 어느 아주머니의 면식(面識) 덕분에 액운(厄運)을 면했다. 우연(偶然)도 연(緣)인가? 돌이켜보면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실수로 인해 일생이 좌우되는 운명의 갈림길이 설 새 없이 스쳐지나 가는 것 같다.

그 후 부산으로 이사하여 영도에 있는 영선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담임선생님이 여선생이었다. 무슨 이유로 나에게 그렇게 엄하고 무섭게 대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촌뜨기였던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실 정도의 위압감으로 변소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바지가 흠뻑 젖어들면서 오줌줄기가 교탁근처로 흘러들어갔다. 그 순간 선생님의 화난 모습과 야단법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놀랍게도 내 짝이었던 그 여자아이, 지금은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 애가 아무 말 없이 교실 뒤로 가더니 걸레를 들고 와서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애야말로 선녀요 천사였다. 그 후에도 그 애는 소풍을 가셔도

마치 오줌싸개 남동생을 보살피는 누이처럼 집에서 싸가지고 온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등 여러모로 정겨운 소녀였다. 뱃고동소리의 여운이 담긴 유행가가사의 한 구절처럼,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 가는지’ 궁금하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으리라 믿음이 가는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곤 곧장 3학년이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콩알만큼 작은 화약 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딱지를 이용하여 놀게 만든 장난감 권총으로 사고를 일으켜 시력과 새끼손가락을 잃을 뻔 했던 큰일을 저질렀다. 참새소리만한 총소리가 성에 차지 않아 서부영화에 나오는 제법 근사한 총소리를 낼 수 없을까 고심한 끝에, 딱지에 붙어있는 화약 알을 하나하나 까서 작은 유리병에 담아 꼬챙이로 쭈셔 가루로 만든 다음, 좀 큰 덩어리가 되면 멧진 소리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한 것이 과열되면서 폭발한 것이다. 대포소리처럼 터졌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당시는 제법 넉넉하게 살아 옷을 단단히 입고 있었기 망정이지 겨울 잠바를 뚫고 스며들어간 불덩이가 런닝셔츠까지 타들어갔다. 기절하고 쓰러진 내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근방에 있던 트럭기사 한 분은 난데없이 의심을 받아 취조를 받는 등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고 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외과와 안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은 수개월 동안의 고통은 지금도 겨울이면 새끼손가락이 말해 준다. 오랫동안의 치료와 아버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썩을지도 모른다던, 새끼손가락은 다행히 썩지 않고 잘 봉합되었지만 길이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완전히 잘라 내었다 라면 장가도 못 갔을지 모른다. 퇴임직전에 배운 색소폰연주를 즐기지만 아쉽게도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저음운지가 쉽지 않다. 시력도 고도의 근시안일뿐 지금도 책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또 다시 전학하여 동대신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마쳤다. 그 무렵 아버님이 실직하게 되면서부터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였다. 또 다시 이사를 했고, 마침내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별 탈 없이 지내던 어느 날 택시에 부딪쳐 제법 멀리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엉덩이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른 큰 부상이 없었던 것은 천운이었다. 사고뭉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실직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1식구의 삶을 힘겨운 세월의 연속으로 만들었다. 식구는 줄었다 늘었다 했다. 형님이 문리대 사학과에 합격하여 서울로 떠날 때는 모처럼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한 식구가 줄었고, 오갈 데 없는 외가 친척 누이들이 출가할 때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지낼 때는 열두 식구가 넘었다. 어느 날은 난데없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꼬마까지 업혀왔다. ‘돌려보내자’와 ‘키우자’는 약간의 언쟁만 있었을 뿐 별 문제 없이 살았다. 비록 살기는 고달팠지만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절,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아코디온 소리가 배웅하는 듯, 은빛물결의 아름다운 풍경화같은 자연 그대로의 해운대바다, 영도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고향이 새삼 그림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컴퓨터 과용에 따른 목디스크로 무더운 여름 내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병원마다 가면 으레 새로이 x-ray를 찍고 시술을 받았으나 별무신통이었다. 병원불신이 도를 넘던 사람이 이제는 노상 병원신세다.

조급한 마음에 명사들도 다녀간다는 지압전문가를 소개받았다. 시술자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목뼈에서 왼쪽어깨와 팔에 이르는 통증은 목 디스크이고, 다리로 연결되는 통증은 허리디스크라고 했다. 3개월에 걸쳐 8번의 시술을 받고 제법 호전되는 듯 했으나, 얼마 후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다. 결국 환자가 북적대는 유명 정형외과의 약 처방과 물리치료에 의해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고의 명약은 역시 치료와 함께 병행한 운동이었다. 틈날 때마다 꾸준히 실行了 목운동과 걷기운동 덕분에 드디어 약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자 아내가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다음에는 또 어디가 아플지 기대된다.”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스트레스 극복과 올바른 섭생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는 운동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도 체형과 체질에 맞아야 효과가 있으며, 체형이 깨어지면 취약한 부위에 병이 오고, 아프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론이다. 운동의 종류도 수없이 많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찾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살수는 없는 법. 끝까지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열 받고 짜증날 때 마음의 일어남을 한 발 떨어져 보게 되면, 그 여유에서 헤쳐 나갈 지혜가 생긴다”,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며, 번뇌와 스트레스의 주범인 죽음에 끌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웰빙 연습’이 곧 당당하게 죽는 ‘웰다잉 연습’이라고 설파한, 혜민, 윤희 두 스님의 말씀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당부한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한 히말리아 달라이라마의 제자 청전스님의 삶 역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착한 삶과 맑은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잡은 오진과 의료사고라는 한 측면과 고도로 발달된 의술의 혜택이라는 다른 측면 사이의 상충을 설 새 없이 체험하면서, 남은 세월동안만은 병치레로 식구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관리와 음식특성에 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우선 저명한 네델란드 명의의 건강비법이 말해주듯이,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머리는 차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더운 바람이 위에서 쏟아지는 요즘의 난방장치는 뭔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동의보감에서 얻는 건강관리 원 포인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교훈은 욕심을 줄이고 많이 베풀라는 뜻의 소욕다시(所欲多施)라고 할 수 있다. “존



경받고 싶으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건강해지려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 속담처럼 소식이 중요하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가려서 먹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요즘 세태를 꼬집는 글이 생각난다: “힘 빠진 중년이 폭 삭은 청춘을 업고 가며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모처럼 다 모인 추석에도 대화 없이 지내는 스마트폰 4천만 시대. 척추가 휘고, 목디스크로 응급실을 찾는 젊은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장소불문, 특히 지하철에서 실 틈 없이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다단한 세상, “하늘 아래 정말 새것이 없으며, 새로운 조합만이 있을 뿐”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긋는 일, 그게 장애”라는 말씀이야말로 인격도야(人格陶冶)와 심신평정(心身平定)에 명약이 될 것이다.

### 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차츰 건강이 회복되자, 흘러간 세월 탓인지, 현명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회한도 병원불신으로 자초한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모두 다 봄기운에 눈 녹듯 사라지고,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광활한 우주와 세계 도처의 기기묘묘한 천해의 걸작(傑作)들과 신묘하기 그지없는 동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상만사가 새삼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자연의 섭리로 느껴진다.

끊임없는 명멸을 통해 형성된 수없이 많은 별들의 역사(役事)는 또 어떤가? “137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진 대폭발(빅뱅) 당시에는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는 상태였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하며 영원히 팽창하고 있다.”는 석학의 교시(敎示)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 만물이, 마치 영화 ‘그래비티’(gravity)에서처럼, 무한한 우주 속의 창공을 미아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느낌이다. 신앙적 차원의 기적은 차치하더라도, 비행기와 선박이 기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버뮤다의 삼각지대나 마야문명과 같은 불가사이, 하얀 치마를 입고 돌고 돌아 끝없이 춤을 추며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도 삶도 아닌 모호한 경지에서 알라신을 만난다는 터키의 수피즘(수피교) 이슬람 신비주의자들, 끔찍할 만큼 예리한 칼날 위에 선 무당의 신 내림 곳, 심령술에 의한 영혼탐색, ‘unbelievable story’에 등장하는 네델란드의 살인자-색출-투시탐정가 제라드 크로이셋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초능력(사이코메트리)-미스테리, 등등 세상만사가 온통 신비와 경이와 기적으로 가득한 만화경이나 다름없다.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지구속의 인간들의 역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예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참혹상으로 얼룩져 있다: 영국 배가 신포 가던 카리브해 노예 130여 명을 산채로 바다에 집어던지질 않나, 아우슈비츠, 마루타, 도무지 인간인지 악마인지. “직접 참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수잔 손택의 이 돌직구 발언은 고통이 ‘선물’로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을 외면케 한다.

더구나 무고한 민간인 335명을 학살하고도 최근까지 이탈리아에서 백수를 누리다 죽은 나치 친위대에 관한 기사를 보면, 한동안 지식인들의 뇌리를 뒤흔들었던 “신은 죽었다!”는 잠언(箴言)이 강렬한 전율처럼 울려온다. 아우슈비츠 잔혹상이 어디 독일에만 해당되는 일인가? 아득히 먼 그 옛날 지구촌 곳곳에서,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 만은, 90년간 발뺌하다 결국엔 증거가 들어나게 된 잔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관동 대학살, 생매장이나 다름없는 광부들의 처참한 갱도생활이나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던 위안부들의 고통스런 삶, 독립투사들과 순국선열, 생체실험이나 다름없었던 운동주시인의 안타까운 죽음 등 일본군의 악독하기 그지없는 만행으로, 강제로 징용되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게 희생된 생명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안중근 의사의 고결한 삶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면, 소소한 비바람은 물론, 태풍, 지진, 쓰나미 등, 역겹의 세월을 관류하는 광활한 우주만물의 운행 하나하나에도 무엇인가 신비로운 하늘의 섭리가 있어, 이 세상만사가 정의의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파도처럼 요동을 친다.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한 독일수상 빌리브란트는 나치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묵묵히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세상을 감동시켰다.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과거사를 망각한 채 끊임없이 독도를 문제 삼으니, 일본의 침략과 만행을 참회하며 위안부 동상 앞에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8억원의 사재를 털어 청계천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목사와 “조선 청년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하다”는 변론을 하며 “나는 양심을 믿는다”는 전기에서 톨스토이의 제자를 자처한 일본의 인권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80~1953)의 일본 ‘신티리’ 속죄의지도 속절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Quo va dis domine?’

“삶에서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누구도 피부색, 배경 또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도록 태어나지 않는다. 미워하게끔 배운다. 미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은가. 사랑은 미움보다 더 자연스레 사람 가슴에 다가온다.” 27년간의 감옥살이와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없이 쓰러졌다 일어난 인류애(人類愛)의 수호성인(守護聖人) 마디바(존경받는 어른) 만델라가 전한 이 희망의 메시지는 저물어가는 2013년에 온 세상의 눈시울을 따뜻하게 적신다. 도무지 선과 악의 경계가 안개 속처럼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세상사 모두가 선몽(善夢)과 악몽(惡夢), 우연(偶然)과 필연(必然)의 긴 터널을 뚫는 듯하다.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 되는 길”이라고 한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볼 따름이다.